

브리티시오픈 '정연진 돌풍!'

4언더 공동 14위 아마선수중 최고 성적...실버메달 획득도

웨스트호이젠 깜짝 우승...우즈 23위·양용은 60위로 추락



'프로잡는 아마' 정연진(20)이 브리티시 오픈에서 공동 14위에 올라 쟁쟁한 프로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정연진은 19일(한국시간) '골프의 성지'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루스 올드코스에서 끝난 제139회 브리티시 오픈(디오플)에서 마지막날 이븐파 72타를 쳐 합계 4언더파 284타로 공동 14위에 올랐다. 브리티시아마추어 챔피언십 우승으로 이번 대회 출전권을 따낸 정연진은 아마추어 출신 선수 중 가장 좋은 성적표를 남겨 실버메달을 받았다. 특히 정연진은 18번홀(파4)에서 이글로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골프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정연진은 "큰 대회에서 좋은 스코어로 마치게 돼 자신감을 얻었다. 바람이 많이 부는 호수에서 주로 연습을 하는데 탄도가 낮은 샷에 대한 훈련을 많이 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정연진은 "아마추어 자격을 유지해야 내년 마스터스에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 전향은 마스터스 이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승은 남아공의 루이 웨스트호이젠이 차지했다. /연합뉴스

세계랭킹 54위 웨스트호이젠은 대회 마지막 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1개를 뽑아내고 보기는 2개로 막는 발군의 실력을 보였다. 2라운드부터 선두에 올라 돌풍을 일으킨 웨스트호이젠은 합계 16언더파 272타를 적어내 2위 리 웨스트우드(잉글랜드, 9언더파 279타)를 무려 7타 차로 따돌렸다. 상금은 85만파운드(미화 약 130만달러). 웨스트호이젠은 지난 3월 유럽프로골프투어 안달루시아오픈에서 처음 우승한 뒤 4개월만에 정상급 선수들이 총출동한 메이저대회 브리티시오픈까지 제패하며 최고의 한해를 보내게 됐다. 남아공 선수로서는 네번째 브리티시오픈 우승자가 된 웨스트호이젠은 2002년 선배 에니 엘스(남아공)가 차지했던 클라레저그를 8년만에 남아공으로 다시 가져왔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마지막 날 이븐파 72타를 치는데 그쳐 공동 23위(3언더파 285타)에 머물렀다. 올드코스에서 세번째 우승을 노렸던 우즈는 나йки의 메소드 퍼터를 예전에 쓰던 스카티카메론 퍼터로 다시 바꿔 나왔지만 벌어진 타수를 잡지 못했다. 두번째 메이저대회 우승에 도전했던 양용은은 2타를 잃고 합계 3오버파 291타로 공동 60위로 떨어졌다. 재미교포 나상욱(27·타이틀리스트)은 2언더파 286타로 공동 27위, 김경태(24·신한금융그룹)는 공동 48위(1오버파 289타)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그랑프리 불참...내년 세계선수권 준비"

김연아 '아이스 쇼' 위해 귀국 새 프로그램은 스페인풍 음악

'피겨퀸' 김연아(20·고려대)가 "이번 시즌 그랑프리 대회에 출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이스쇼 '삼성 애니콜 하우젠 2010 올댓 스키아트 서머'에 참가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19일 오전 입국한 김연아는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이번 시즌 그랑프리 시리즈는 건너 뛰고 내년에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를 준비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연아는 또 "동계 아시안 게임에도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시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를 시작하지 않았는데 세계선수권대회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할 것"이라며 "아이스쇼를 끝내고 캐나다 토론토로 돌아가면 코치진과 함께 의견을 조율해서 마련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해보지 않은 음악 장르가 많"이라며 "탱고 같은 스페인 풍의 음악을 해보고 싶다"고 설명했다. 5월 치른 올해 첫 아이스쇼에서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안겼던 본드걸 연기와 함께 지난 시즌 갈라 프로그램 '타이스



'피겨퀸' 김연아와 박민정이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기자회견에 앞서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의 명사곡'을 선보였던 김연아는 이번에는 '내일의 꿈'을 주제로 미래의 성취를 연기할 계획이다. 영국 팝그룹 라투의 '블릿프루프(Bullet-proof)'에 맞춰 힙합 스타일의 새 갈라 프로그램도 공개할 예정이다. 김연아는 "오늘 저녁부터 공연 준비에 들어갈 것 같다"며 "본격적인 리허설은 공연에 출연하는 모든 선수들이 입국하고 나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아이스쇼는 7월 23일 오후 8시와 24일 오후 5시, 25일 오후 2시와 6시 등 4회에 걸쳐 펼쳐진다. 아이스쇼에는 김연아와 미셸 판을 비롯해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사샤 코헨(미국),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남자 싱글 4위 스테판 람비엘(스위스), 2007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싱글 금메달리스트 브리앙 주베르(프랑스)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성 정체성 논란' 세메나 복귀 후 800m 연속 우승

성 정체 논란 탓에 11개월 만에 트랙에 돌아온 여자 육상 선수 카스터 세메나(19·남아공)가 복귀 후 두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세메나는 19일(한국시간)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지역 육상대회 여자 800m에서 2분02초42의 기록으로 1위에 올랐다. 세메나는 지난해 베를린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800m에서 1분55초45의 경이적인 기록으로 우승했지만 이후 얼굴 생김새와 근육질 몸매, 중저음 목소리 탓에 남자가 아니냐는 논란에 휘말렸다. 논란이 커지면서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세메나는 의료조사단의 확인을 거쳐 지난 6일에야 국제육상연맹(IAAF)으로부터 '여성'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연합뉴스

FIFA 실사단 22일 방한...월드컵 유치 상황 점검

2022년 월드컵축구대회 유치에 나선 한국이 개최지 투표를 4개월여 앞두고 '수능시험'을 치른다. 아랍드 마이네-니콜스 칠레 축구협회장이 단장을 맡고 4명의 국제축구연맹(FIFA) 직원으로 구성된 FIFA 실사단이 22일 한국을 방문해 3박4일동안 경기장과 회의장, 숙박시설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FIFA 실사단은 체류기간 2022월드컵축구대회유치위원회가 지난 5월 제출했던 유치제안서를 바탕으로 결승전 장소인 서울월드컵경기장과 조추첨 장소인 대구 EXCO와 고양 킨텍스(KINTEX), 과주NFC 훈련장 등을 살펴

본 뒤 보고서를 FIFA 집행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실사 기간 두 차례 미디어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지만 장·단점 등 실사 결과에 대해선 일체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2018년 월드컵은 잉글랜드와 네덜란드-벨기에, 러시아, 스페인-포르투갈이 경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대회는 한국과 일본, 미국, 호주, 카타르가 접전을 펼치고 있다. FIFA는 오는 12월 2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2018년 대회와 2022년 대회 개최지를 한꺼번에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요트 신동' 조원우 일냈다

'요트 신동' 조원우(16·부산체고)가 한국 요트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조원우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지난 8일(이하 한국시간)부터 17일까지 열린 제40회 볼보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RS : X(윈드서핑)에서 마테오 산스(17·스페인)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했다. 총 8차례 레이스를 벌이는 동안 조원우는 7차 레이스까지 종합 단독 선두를 달렸지만

마지막 8차 레이스에서 7위로 떨어져 1위를 지키지 못했다. 합계 성적 23점. 1위 산스에 불과 2점 뒤졌다. 대회를 마치고 18일 입국한 조원우는 "생각지도 않은 1위를 계속 달리다 보니 불안해져서 며칠을 2시간씩 자고 경기를 치렀다"고 말했다. 실력보다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1971년부터 매년 펼쳐지는 이 대회는 국

볼보 세계청소년요트선수권대회 윈드서핑서 사상 첫 준우승 쾌거

제요트연맹이 인정하는 1등급 대회이다. 이 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3위 이내에 든 것은 조원우가 처음이다. 조원우는 이미 2009년 15세의 나이에 국가대표로 발탁되며 한국 요트의 기대주로 떠올랐다. 지난 6월에 펼쳐진 독일 킬위크 세계요트대회에선 유소년부 RS : X 종목에 출전해 우승하며 세계 요트계에 이름을 알렸다. /연합뉴스

'K-리그 올스타 팬 투표' 김동진 1위 굳히기

프로축구 올스타 현대의 수비수 김동진이 K-리그 베스트 11 팬투표 2차 중간집계 1위를 지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FC바르셀로나 초청 K리그 올스타전 2010' 팬투표 2차 중간집계 결과 김동진이 4만7750표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위 조용현(제주·3만7065)은 1만6855표차

로 따돌린 김동진은 1차 집계에서 이어 선두를 지키고 있다. FC 서울의 공격수 이승렬은 새롭게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렸다. 1차 투표에서 공격 부문 3위에 올랐던 이승렬은 2차 투표에서 2위를 기록하며 베스트 11에 포함됐다. 포지션별로는 공격수에 이동국(전북현대)과 이승렬(FC서울), 미드필더 구자철(제

주유나이트)·에닝요(전북)·김정우(광주상무)·몰리나(성남일화), 수비수 김동진(울산현대)·조용현(제주)·김정일(포항스틸러스)·최효진(서울), 골키퍼 정성룡(성남)이 이름을 올렸다. 베스트 11을 선정하는 온라인 팬투표는 오는 23일까지 계속되며 투표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올스타전 입장권(25명.1인2매)과 외식권(50명), 선수 사인이 담긴 유니폼(5명), K-리그 공인구(2명), EA스포츠 FIFA 10(20명) 등이 경품으로 제공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구분	순위	표수
김동진	1위	47,750
조용현	2위	37,065
이승렬	3위	31,234
구자철	4위	28,901
이동국	5위	25,678
정성룡	6위	22,345
에닝요	7위	19,012
몰리나	8위	16,789
김정우	9위	14,567
김정일	10위	12,345
최효진	11위	10,123
정성룡	12위	8,901
에닝요	13위	7,678
몰리나	14위	6,456
김정우	15위	5,234
김정일	16위	4,012
최효진	17위	3,789
정성룡	18위	2,567
에닝요	19위	1,345
몰리나	20위	1,123